논어 15편 위령공 34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民之於仁也，甚於水火。水火，吾見蹈而死者矣，未見蹈仁而死者也。」

독음 · 자왈 민지어인야 심어수화 수화 오견도이사자의 미견도인이사자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사람에게 인은 물과 불보다 더 절실하다. 물과 불에 들어가 죽는 이는 보아도 인을 행해 그처럼 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강조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民 백성 민 민 / 之 갈 지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仁 어질 인 인 / 也 어조사 야 / 甚 심할 심 심

水 물 수 수 / 火 불 화 화 / 吾 자기 오 오 / 見 볼 견 견

蹈 밟을 도 도 / 而 말이을 이 / 死 죽을 사 사 / 者 놈 자

矣 어조사 의 / 未 아닐 미 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